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김동순* · 김유숙* · 김소희* · 장영희* · 장미선* · 박 종**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Dong-Soon Kim* · Yu-Suk Kim* · So-Hui Kim* · Young-Hee Jang* · Mi-Sun Jang* · Jong Park**

요 약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 약물남용 등의 다른 건강위험행태로의 관문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생활습관으로 이어져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 할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9년 우리나라 중학생 38,409명, 고등학생 36,657명 총 75,066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흡연경험 여부와 인터넷 중독 여부는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고 흡연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은 남학생이 34.2%, 여학생은 19.7%로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17.6%, 여학생이 11.4%로 조사되었으며, 흡연경험 있는 남학생이 흡연경험 없는 학생의 1.06배 여학생은 흡연경험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1.62배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건강생활습관인 흡연경험이 인터넷 중독 경향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흡연경험이 비흡연경험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흡연행위와 컴퓨터 중독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흡연과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을 복합적인 건강위험행위로 보아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Smoking in adolescence can cause other health risks such as drinking and abusing drugs. Besides, it goes on adulthood so it can threaten their health all days. This study want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internet addiction in mid- and highschool students in Korea. It conducted for 38,409 middle school students and 36,657 highschool student in Korea. Smoking and internet addiction was investigated by chi-squared test and the relation between them was done b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under 0.05. The percentage of smoking is 34.2% in male student and 19.7% in female student. The percentage of internet addiction is 17.6% in male student and 11.4% in female student and it is higher in students who smoked by 1.06 times for male student and 1.62 times for female student.

This result shows that smoking which is non-healthy habit is related with internet addiction significantly. Smoking can cause high stress and this stress is shown to be developed in internet addiction. In conclusion, smoking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are bad habits and they are affect each other.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a measure by looking as smoking,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are complex health risks rather than trying to prevent and treat them individually.

키워드

Korean adolescent, Smoking experience, Internet addiction
한국청소년,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 조선대학교대학원 보건학과(mdkchoi@yahoo.com) **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종(jpark@Chosun.ac.kr)
접수일자 : 2012. 07. 03 심사(수정)일자 : 2012.. 07. 26 게재확정일자 : 2012. 08. 09

Ⅰ. 서 론

청소년기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며 사회적으로도 힘들게 적응하며 갈등과 방황을 하는 시기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건강에 유해한 행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성인의 건강행동형태로 이어지게 된다[1]. 그러므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의 노출로 인한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잘못된 성행위, 약물남용, 자살, 폭력, 사고 등의 건강위험 행위는 건강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2]. 그 중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흡연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시작된 흡연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과의 관련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3].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 약물남용 등의 다른 건강위험행태로의 관문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생활습관으로 이어져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 할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4].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은 긍정적, 부정적인 다양한 형태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에 일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자율적으로 통제가 어렵고 병적인 집착을 보여 심신이 모두 심각한 상황을 보인다[5]. 2010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이고 그 중 청소년(12.4%)이 성인(5.8%)의 2.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청소년의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2.0시간이고, 이용목적은 게임 65.2%, 검색 64.9%, 채팅 46.1%의 순서로 거의 모든 청소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컴퓨터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부정적 적응을 한다고 하였고[7],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들의 경우 수면 부족, 신체이상, 가족과의 대화 부족, 취미 활동 부진, 불규칙한 식사습관, 부모와의 갈등, 성적이 낮았으며[8], 집단 따돌림, 폭주족, 성폭력, 가출 및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엽기콘텐츠 이용을 증가시키고[9], 부적응적 이고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10]. 만 9-19세까지 청소년 중 87.2%가 수면 부족 등의 건강악화 문제가 심각하여[11], 장시간 컴퓨터사용으로 일상생활주기가 교란되어 만성피로감과 시력이 약해지거나 어깨, 손목 등이 뻐근해지며 수면부족으로 학교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생활 파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건강위험행위를 겹쳐서 습득하여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12]. 흡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20세까지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흡연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13]고 보고되었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사용 수준 증가와 흡연 시작을 동시에 유발하는 결과를 보였고[14] 흡연하는 학생들이 음주, 본드, 최면제, 대마초를 하는 행위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그로 인한 일탈행위와 이행이 용이하다[15]고 보고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행위가 인터넷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실제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교육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추가기간 : 10.1.~11.20)까지 시행한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중1~고3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학교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학년별 1개 학급이며, 모집단 층화는 시, 군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총 64개로 집락화 하였다. 표본학교와 학급의 추출은 계통추출법으로 하였고 표본학급을 전수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조사된 중학생 38,409명, 고등학생 36,657명 총 75,066명이고 14개 영역 1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자료수집 방법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일괄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의 구성은 건강위험행태로는 흡연여부, 인터넷 중독

여부, 음주여부,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별, 부모동거여부, 가정경제상태, 부모교육수준, 성적, 일주일 평균용돈으로 구분하였다.

2.3 변수의 정리

2.3.1 독립변수

흡연여부는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고 음주여부는 지금까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셔본 적 '있다', '없다'로 스트레스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와 '별로 느끼지 않는다'를 '없다'로 '조금 느낀다', '많이 느낀다', 대단히 '많이 느낀다'를 '있다'로 구분하였다.

2.3.2 종속변수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척도로 일상생활장애(1요인), 현실구분장애(2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3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4요인), 일탈행동(5요인), 내성(6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때대로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하였다. 총점 48점 이상이거나, 1요인 14점 초과, 3요인 9점 초과, 6요인 11점 초과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중독, 그 외를 정상으로 보았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남녀 간에 건강위험행위의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정도는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고, 흡연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은 남녀로 구분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75,066명 중 남학생은 39,612명(53%), 여학생은 35,454명(47%)이며 중학생은 38,409명(50.5%), 고등학생은 36,657(49.5%)이었고 남학생 중 대도시에 54.7%, 도시에 39.9%, 군 지역에 5.4%가 살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54.6%가 대도시에 40.2%가 도시에 5.3%는 군 지역에 살고 있었다. 남학생 82.4%와 여학생 83.7%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남학생의 24.4%, 여학생의 24.9%가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 학력은 남학생 42%, 여학생 42.6%가 대졸 이상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남학생의 31.2%, 여학생의 30%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37.1%, 여학생의 39.3%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용돈은 5만원 미만이 남학생의 86.4%, 여학생의 88.8%로 조사되었고, 대상자의 건강위험행위 경험으로 남녀 각각 음주는 57.8%, 54.1%, 흡연은 34.2%, 19.7%, 스트레스는 80.7%, 88.3%로 조사되었다.

표 1. 대상자의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변 수		남	여	합계
		n=39,612(%)	n=35,454(%)	n=75,066(%)
학년				
	중학생	20,933(50.5)	17,47650.5)	38,409(50.5)
	고등학생	18,679(49.5)	17,978(49.5)	36,657(49.5)
지역				
	대도시	21,014(54.7)	18,273(54.6)	39,287(54.6)
	도시	13,802(39.9)	12,605(40.2)	26,407(40.0)
	군지역	4,796(5.4)	4,576(5.3)	9,372(5.3)
부모동거여부				
	부모	31,995(82.4)	29,059(83.7)	61,054(83.0)
	편부, 편모	5,247(12.7)	4,810(12.7)	10,057(12.7)
	기타	2,370(4.9)	1,585(3.6)	3,955(4.3)
가정경제상태				
	하	9,961(24.4)	9,406(24.9)	19,367(24.6)
	중	17,743(44.4)	17,706(49.9)	35,449(47.0)
	상	11,908(31.2)	8,342(25.2)	20,250(28.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17,001(40.6)	16,398(43.3)	33,399(41.9)
	대졸이상	15,314(42.0)	13,735(42.6)	29,049(42.3)
	모름	5,158(12.3)	3,966(10.7)	9,124(11.6)

	해당 없음	2,139(5.0)	1,355(3.4)	3,494(4.2)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20,192(49.9)	20,702(57.0)	40,894(53.2)
	대졸이상	11,351(31.2)	9,693(30.0)	21,044(30.6)
	모름	5,876(13.8)	3,890(10.2)	9,766(12.1)
	해당 없음	2,193(5.1)	1,139(2.8)	3,362(4.0)
성적				
	하	14,938(37.1)	13,914(39.3)	28,852(38.2)
	중	10,544(26.6)	9,675(27.0)	20,219(26.8)
	상	14,130(36.3)	11,865(33.7)	25,995(35.1)
용돈(만원/주)				
	< 1	13,721(33.5)	11,952(33.0)	25,673(33.3)
	1~ < 5	21,016(53.1)	19,609(55.8)	40,625(54.4)
	≥ 5	4,875(13.4)	3,893(11.2)	8,768(12.4)
음주경험		22,945(57.8)	19,620(54.1)	42,565(56.1)
흡연경험		13,908(34.2)	7,147(19.7)	21,055(27.4)
스트레스		31,819(80.7)	31,394(88.3)	63,213(84.3)

3.2 대상자 인터넷 중독의 정도

인터넷 중독의 경우 남녀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지역으로 대도시, 도시, 군지역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동거는 남학생중 두 부모 함께 동거하는 학생(17.2%)이 한 부모 가정(19.4%)이나 기타(20.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도 부모 모두 동거하는 학생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정경제상태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는 '하'라고 응답한 군이 남학생의 경우 23.0%, 여학생의 경우 14.4%로 유의하게 높았고,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과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고졸이하가 대졸 이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성적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하(20.5%), 중(16.2%), 상(15.6), 여학생의 경우 하(13.0%), 중(10.2%), 상(10.4%)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주일 용돈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은 용돈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은 경험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학생은 1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는 남녀 모두 스트레스 있는 학생이 남학생 19.2%, 여학생 12.1%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표 2. 대상자 인터넷 중독의 정도
Table 2. Internet addiction based on circumstance parameters

변 수	남 n(%)		p	여 n(%)		p
	중독	정상		중독	정상	
학 년						
중학교	3,629(17.1)	17,304(82.9)	.006	1,893(10.4)	15,583(89.6)	.000
고등학교	3,455(18.1)	15,224(81.9)		2,268(12.3)	15,710(87.7)	
지역						
대도시	3,680(17.5)	17,334(82.5)	.745	2,143(11.7)	16,130(88.3)	.069
도시	2,525(17.7)	11,277(82.3)		1,453(10.9)	11,152(89.1)	
군지역	879(18.0)	3,917(81.7)		565(11.4)	4,011(88.6)	
부모동거여부						
부모	5,529(17.2)	26,466(82.8)	.000	3,255(10.9)	25,804(89.1)	.000
편부, 편모	1,074(19.4)	4,173(80.6)		686(14.1)	4,124(85.9)	
기타	481(20.4)	1,889(79.6)		220(13.6)	1,365(86.4)	
가정경제상태						
하	2.312(23.0)	7,649(77.0)	.000	1,383(14.4)	8,023(85.6)	.000
중	3,018(16.9)	14,725(83.1)		1,898(10.6)	15,808(89.4)	
상	1,754(14.5)	10,154(85.5)		880(9.9)	7,462(90.1)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3,271(19.2)	13,730(80.8)	.000	1,975(11.8)	14,423(88.2)	.003
대졸이상	2,459(15.8)	12,885(84.2)		1,560(10.9)	12,175(89.1)	
모름	931(17.8)	4,227(82.2)		440(10.8)	3,526(89.2)	
해당없음	423(19.4)	1,716(80.6)		186(13.6)	1,169(86.4)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3,810(18.9)	16,382(81.1)	.000	2,494(12.0)	18,208(88.0)	.000
대졸이상	1,739(14.9)	9,612(85.1)		1,049(10.3)	8,644(89.7)	
	1,093(18.2)	4,783(81.8)		459(11.7)	3,431(88.3)	

모름	442(20.2)	1,751(79.8)		159(13.3)	1,010(86.7)	
해당없음						
성적						
하	3,118(20.5)	11,820(79.5)	.000	1,860(13.0)	12,054(87.0)	.000
중	1,694(16.2)	8,850(83.8)		1,026(10.2)	8,649(89.8)	
상	2,272(15.6)	11,858(84.4)		1,275(10.4)	10,590(89.6)	
용돈(만원/주)						
< 1	2,335(17.1)	11,386(82.9)	.064	1,188(9.7)	10,764(90.3)	.000
1~ < 5	3,788(17.7)	17,228(82.3)		2,367(11.7)	17,242(88.3)	
≥ 5	961(18.5)	3,914(81.5)		606(14.6)	3,287(85.4)	
음주경험						
유	4,254(17.9)	18,691(82.1)	.132	2,621(13.0)	16,999(87.0)	.000
무	2,830(17.3)	13,837(82.7)		1,540(9.5)	14,294(90.5)	
흡연경험						
유	2,753(19.1)	11,155(80.9)	.000	1,248(17.2)	5,899(82.8)	.000
무	4,331(16.8)	21,373(83.2)		2,913(9.9)	25,394(90.1)	
스트레스						
유	6,275(19.2)	25,544(80.8)	.000	3,920(12.1)	27,474(87.9)	.000
무	809(10.8)	6,984(89.2)		241(5.7)	3,819(94.3)	

3.3 흡연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1.06배, 여학생은 1.62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흡연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 of smoking habits and internet addiction

	남	여
	OR(95% CI)	OR(95% CI)
흡연경험		
무	1.00	1.00
유	1.06(1.01-1.12)	1.62(1.49-1.75)

OR=odds ratio ; CI=confidence interval.

보정변수(남학생) : 학년, 부모동거여부, 가정경제상태,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성적, 스트레스여부

보정변수(여학생) : 학년, 부모동거여부, 가정경제상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성적, 일주일평균용돈, 음주경험, 스트레스여부.

Ⅳ. 논 의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의 시기로써 인터넷 중독이나 여러 가지 건강위험행위가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률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7.6%이었고 여학생은 11.4%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미한 중독이 22.3%, 심각한 중독비율 2.1%로 전체 24.4%로 보고한 김춘미의[16] 경우나 초기중독집단은 58.9%, 중증중독집단은 3.3%로 총 62.2%로 보고한 남영옥 등[17]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검사 도구가 다르거나, 같은 검사도구이지만 대상자가 다른 연구에서 많은 편차를 보인다. 이는 조사도구인 자가설문지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별 인터넷 중독률은 남자고등학생(18.1%)이 남자중학생(17.1%)보다 여자고등학생(12.3%)이 여자중학생(10.4%)보다 남녀 모두에서 고등학생의 중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18] 실시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이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고 된 것과 결과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의 중독률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현동[19]과 김춘미의[16]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인터넷 중독률과의 관계는 흡연경험 있는 학생이 경험 없는 학생보다 남 여 각각 1.06배, 1.62배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흡연을 포함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경향성이 높다고 한 김정숙 등[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 일수록 건강 생활습관이 나빠지는 것처럼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인터넷 중독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어, 부정적인 건강 생활습관이 컴퓨터 중독 경향에 유의하게 관련되

어 있다는 김창국[2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박남희[9]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 흡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유의하게 높고, 높아진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22] 결국에는 흡연이 스트레스를 매개로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11]의 보고에서 흡연이나 음주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건강위험행위 간의 상호관련성으로 청소년은 여러 건강위험행위를 중복적으로 습득함으로써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노출되어[12], 이미 한 가지 위험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다른 위험행동을 중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23] 흡연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는 44.5%가 공공장소(PC방. 노래방. 공원, 콘서트), 15.3%가 집, 11.1%가 학교, 친구 집, 생일잔치, 동아리 모임 등[3]의 순서로 보고되었다. 또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PC방을 더 자주 사용하고 pc방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보아도 흡연자가 더 오래 PC방을 이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 PC방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24]고 보고되었다. 또 인터넷 사용정도와 흡연과의 관계에서 흡연 단계가 높을수록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활동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14]고 보고되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자 일수록 흡연을 더 하고 흡연량도 유의하게 많아졌다[25]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위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흡연을 하기위해 PC방의 출입이 잦아지고 이는 곧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가정경제상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률은 청소년들이 게임, S/W 등을 다운 하는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그룹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흡연 실태를 학생의 자가보고를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흡연 여부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더 민감할 수 있어 타당도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흡연관련 설문조사 시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통한 니코틴 측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흡연여부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가 단면조사로 이루어져 인터넷 중독과 건강관련 생활습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었으며, 정반대로 나쁜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젖어들수록 인터넷에 중독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는 바, 향후 이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이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흡연은 평생 경험을 조사하였고 ,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 K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17.6%, 여학생이 11.4%로 조사되었다.
2. 흡연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남학생의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이 1.06배, 여학생은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1.62배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흡연경험이나 음주경험 등 건강위험행위는 개별적이 아닌 복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쉽게 인터넷 중독이 되고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흡연과 인터넷 중독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흡연 행위와 인터넷 중독이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흡연,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2] Lindberg, LD., Boggess, S. & Williams, S. “Multiple theats: The co-occurence of teen health risk behavior‘(ASPE Puboication No. HHS-100-95-0021).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1.

[3] 장진영.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권, 2호, pp. 75-88. 2006.

[4] Da Costa e Silva V. L., Fishbum B. “Tobacco use and control : determinants of consumption,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role of the tobacco industry.” Toxicology, Vol. 198, pp. 9-18, 2004.

[5] 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tudy of Developing an Internet-Addiction Counseling Program for Adults”, Seoul, 2010.

[7] 이현순.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8] 배철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9] 박남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2권, 4호, pp. 123-136, 2005.

[10] 위휘. “청소년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권, 2호 , pp. 129-138, 2005.

[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12] Kulbok, PA., & Cox, CL. “Dimensions of adolescent health behavior.” J Adolesc Health. 31권, 5호, pp. 394-400, 2002.

[13] Milton, B, Cook, PA., Dugdill, L. Porcellato, L. & Springett, J. “Cigarette Use Among Teens Inches downwar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Retrieved February 5. from http://www.cancer.org/docroot/NWS/content/NWS_1_1x_Cigarette_Use_Among_Teens_Inches_Downward.asp. 2001.

[14]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청소년 흡연, 알코올 사용과 인터넷의 중독경향 연관성 및 기질,” 성격특성 연구, 2006.

[15] The American Cancer Society, 2001.

[16] 김춘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권, 3호, pp. 316-326, 2009.

[17] 남영옥.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보호요인.” 인간발달연구회, 13권,2호, pp. 21-36, 2006.

[1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tudy of Developing an Internet-Addiction Counseling Program for Adults.” Seoul, 2004.

[19] 이현동.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 탐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 대학원, 2007.

[20] 김정숙, 천병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예방의학학회지, 38권, 1호, pp. 53-60. 2005.

[21] 김창국. “중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컴퓨터 증후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22] 최연희, 서부덕, 최은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권, 3호, pp. 452-459, 2007.

[23] 손애리. “서울시 중학생의 폭음실태와 건강위험행동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권, 2호, pp. 49-59, 2003.

[24] 박용선, 노영만, 김치년, “PC방에서의 간접흡연에 따른 요중 코티닌의 농도.” 한국환경위생학회지, 28권, 1호, pp. 11-20, 2002.

[25] 김영신.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관련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26] 이상의, 최진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아 정체성 확립의 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5권, 2호, pp. 183-196, 2002.

[27] 최혜진.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권, 4호, pp. 113-133, 2011.

[2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29] 백미영.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0] 홍경희.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1] 진성철, 김인경.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 성별, 이용량, 이용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5호, pp. 731-737, 2011.
[32] 박현우. “한국인터넷 교환노드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3권, 4호, pp. 304-312, 2008
[33] 이태웅, 손철수, 김원중. “스마트 폰에서 인터넷 사이트 정보 재가공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지, 6권, 2호, pp. 319-324, 2011.

저자 소개

김동순(Dong-Soon Kim)

1972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 회화학과 졸업 (미술학사)
2008년 목포과학대학 관광경영복지학과졸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졸업(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김유숙(Yu-Suk Kim)

1982년 조선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졸업 (이학사)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졸업(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김소희(So-Hui Kim)

2006년 조선대학교 인터넷소프트웨어 공학과 졸업 (공학사)
2009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보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장미선(Mi-Sun Jang)

2008년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사)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보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전자통신

장영희(Young-Hee Jang)

2007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학사)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졸업(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박 종(Jong Park)

1989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93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석사)
1999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박사)
현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관심분야 : 전자통신